영재교육연구 제 27 권 제 1 호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17. Vol 27. No 1, pp. 81~96
https://doi.org/10.9722/JGTE.2017.27.1.81

음악재능 청소년의 음악열정: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안 도 희
중앙대학교

김 유 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홍 성 아
중앙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음악재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닌 음악에 대한 열정(조화열정, 강박열정)의 고·저에 따른 군집 간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음악가치와 음악성취감 간의 관계에서 음악열정과 음악만족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경기, 충남 및 부산지역에 소재한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 전공 학생 총 599명이었으며, 이들 중 응답이 불성실한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총 524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결과, 음악열정 유형의 고·저에 따른 군집이 4개(고열정, 조화열정, 강박열정, 저열정)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집단 간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높게 지니고 있는 고열정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박열정은 낮지만 조화열정이 높은 조화열정 집단이 높게 나타났고,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낮은 저열정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가치와 음악성취감 간의 관계에서 열정(조화열정, 강박열정)과 음악만족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조화열정이 강박열정에 비해 음악성취감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음악가치의 영향을 받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음악성취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음악만족감을 거쳐 음악성취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박열정보다 조화열정을 추구할 때 음악재능 청소년들의 음악성취감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음악재능 청소년들의 음악성취감 증진을 위해 이들로 하여금 강박열정보다는 조화열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음악열정, 음악만족감, 음악성취감, 음악가치, 음악재능 청소년

I. 서 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 안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몰입하게 되며, 타인과의 강렬한 사회적 유대감과 음악에 대한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교신저자: 안도희(dahn@cau.ac.kr)

된다(Croom, 2012). 이와 같이 음악은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심리를 풍성하게(flourishing) 선사하고, 삶의 안녕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이 주는 이러한 혜택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는 음악재능 청소년들도 그러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며,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음악재능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정체성을 음악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음악가로서의 정체성 획득을 위해 음악에 대한 가치와 열정을 가지고 음악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획득하기 위해 헌신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가치와 열정이 긍정정서(Curran, Hill, Appleton, Vallerand, & Standage, 2015; Stenseng, Forest, & Curran, 2015; Vallerand, Blanchard, Mageau, Koestner, Ratelle, Léonard, Gagné, & Marsolais, 2003), 삶의 만족감(Bonneville-Roussy, Lavigne, & Vallerand, 2011; Curran et al., 2015; Lafrenière, St-Louis, Vallerand, & Donahue, 2012; Stenseng et al., 2015), 소속감(Stenseng et al., 2015), 심리적 안녕감(Forest, Mageau, Sarrazin, & Morin, 2011), 주관적 안녕감(Vallerand, Salvy, Mageau, Elliot, Denis, Grouzet, & Blanchard, 2007) 그리고 성취(Bélanger, Lafreniere, Vallerand, & Kruglanski, 2013; Bonneville-Roussy et al., 2011; Curran et al., 2015; Lafrenière et al., 2012; Stenseng et al., 2015; Vallerand et al., 200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음악재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가치, 음악열정,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재능 청소년들의 음악가치와 음악열정,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 간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음악재능 청소년들의 음악열정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열정이 지닌 개념적 속성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변인 간 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조화열정(harmonious passion)은 좋아하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은 좋아하는 활동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onneville-Roussy et al., 2011; Vallerand et al., 2003; Vallerand et al., 2007).

이 두 열정은 앞서 언급한 안녕감(well-being) 및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들 즉 정서, 삶의 만족감, 성취에 서로 다른 관련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조화열정은 긍정정서(Vallerand et al., 2003), 삶의 만족감(Bonneville-Roussy et al., 2011; Curran et al., 2015; Lafrenière et al., 2012; Vallerand et al., 2007), 심리적 안녕감(Forest et al., 2011), 주관적 안녕감(Vallerand et al., 2007) 및 성취(Bonneville-Roussy et al., 2011; Curran et al., 201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박열정은 부정정서(Curran et al., 2015; Vallerand et al., 200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감(Curran et al., 2015), 심리적 안녕감(Forest et al., 2011) 및 주관적 안녕감(Vallerand et al., 2007)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취에는 긍정적(Bonneville-Roussy et al., 2011; Vallerand et al., 2007) 혹은 부정적(Curran et al., 201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열정에 따른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음악성취감은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들 변인 간 관계성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가치(music valuation)를 독립변인으로 두었으며, 음악성취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음악열정과 음악만족감을 음악가치와 음악성취감 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가치가 열정을 불러일으켜 헌신하게 하고(Bonneville-Roussy et al., 2011), 열정은 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하며(St-Louis, Carbonneau, & Vallerand, 2015; Vallerand, Paquet, Philippe, & Charest, 2010), 결과적으로 성취(Bélanger et al., 2013; Curran et al., 2015; Heffner & Antaramian, 2016)를 획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음악재능 청소년들의 음악가치와 열정, 만족감과 성취감의 관계가 이러한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재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닌 음악가치와 음악열정 그리고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 간의 관계성과 음악열정의 유형에 따른 나머지 세 변인(음악가치, 음악만족감, 음악성취감) 간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음악재능 청소년들의 음악만족감 및 성취감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음악열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음악재능 청소년들의 적절한 음악열정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악가치, 음악열정,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의 상호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음악열정의 하위 요인의 고·저에 따른 군집유형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음악열정의 군집유형별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이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음악가치와 음악열정 및 음악만족감이 음악성취감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가치는 “해야 하는” 태도와 행동의 기준 요인이다(Feather, 1992). 즉 가치는 생물학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그리고 집단의 안녕과 생존을 위한 사회제도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에 동기를 불러일으킨다(Bonneville-Roussy et al., 2011; Feather, 1992). 이와 같이 가치는 심리요인의 다양한 스펙트럼(인지, 정서, 동기, 태도, 행동,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열정(Bonneville-Roussy et al., 2011), 행위에 대한 만족감(Casas, González, Figuer, & Coenders, 2004), 성취감(Berndt & Miller, 1990)과도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가치가 내재화된 행위는 개인의 정체성과 열정을 형성하는데, 가령 클라리넷 연주에 가치를 둔 열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단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클라리네티스트(clarinetist)로 여기며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활동에 매진하게 된다(Bonneville-Roussy et al., 2011). 이와 같이 가치는 열정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열정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활동을 향한 강한 성향이며, 이는 그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한다(Vallerand et al., 2003). 열정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차이는 개인의 자율적 통제와 강박적 통제에 있다. 가령, 조화열정을 지닌 사람은 열정을 품은 활동 중에 신체적인 부상이나 타인과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 활동을 잠시 혹은 완전히 중지시킬 수 있는 유연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반면, 강박열정을 지닌 사람은 오히려 개인의 내외적 압력(신체적인 부상이나 타인과의 갈등)들을 경직되고 강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열정을 품은 본인의 활동에 무리하게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안도희, 정재우, 2010; Bonneville-Roussy et al., 2011; Vallerand et al., 2003; Vallerand et al., 2007). 따라서 조화열정을 지닌 사람은 어떤 활동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즐겁고 자유롭게 참여하여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반면, 강박열정을 지닌 사람은 어떤 활동을 강박적으로 통제하고 무리하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목표한 바는 성취할 수는 있어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혹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조화열정이 높은 사람이 강박열정이 높은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삶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자기수용,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과 같은 자기실현적 안녕감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Philippe, Vallerand와 Lavigne(2009)의 연구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음악열정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유형별 집단에 따라 음악가치와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화열정은 일에 대한 만족감(Curran et al., 2015; Vallerand et al., 2010)과 성취감(Bonneville-Roussy et al., 2011; Curran et al., 2015; Vallerand et al., 200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조화열정의 일에 대한 만족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Curran 외(2015)의 열정 관련 메타분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Vallerand 외(2010)의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며, 조화열정의 성취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음악가를 대상으로 한 Bonneville-Roussy 외(2011)의 연구와 Curran 외(2015)의 메타분석,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Vallerand 외(2007)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강박열정은 일에 대한 만족감 및 성취감 간 관계성이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Vallerand 외(2010)의 연구에서는 강박열정이 일에 대한 만족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Curran 외(2015)의 열정 관련 메타분석에서는 강박열정이 일에 대한 만족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두 변인 간 영향력에서는 강박열정이 일에 대한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박열정과 성취감 간 영향력에서는 성인(직장인,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Bélanger 외(2013)의 연구 및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Vallerand 외(2007)의 연구에서 강박열정이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Curran 외(2015)의 열정 관련 메타분석에서는 강박열정이 성취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악가를 대상으로 한 Bonneville-Roussy 외(2011)의 연구에서는 열정과 성취 간 목적지향이라는 동기가 매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즉, 강박열정과 음악성취 간 숙달접근이 매개한 경우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행접근 혹은 수행회피가 매개한 경우에는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조화열정과 일에 대한 만족감 및 성취감 간 관계는 비교적 일관된 관계성이 보고된 반면, 강박열정은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의 연구대상은 모두 성인(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음악재능 청소년들의 음악열정(조화열정, 강박열정)이 음악만족감과 음악성취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변인 간 관계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만족감은 성취감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Balkis(2013)의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ox(2003)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었다. 두 변인 간 영향력에 있어서는 일에 대한 만족감이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Balkis(2013)의 연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Rode, Arthaud-Day, Mooney, Near, Baldwin, Bommer와 Rubin(2005)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재능 청소년이 아닌 일반 성인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정 직업의 업무 혹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만족감 및 성취감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음악재능 청소년들의 음악만족감이 음악성취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 충청 및 부산지역에 소재한 3개의 예술고등학교에서 음악 전공을 하는 학생들 총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응답이 부실한 75명을 제외한 나머지 총 524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04명(19.8%), 여학생이 420명(80.2%)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328명(62.6%), 2학년이 163명(31.1%), 3학년이 33명(6.3%)이었다. 전공별로는 피아노 전공이 158명(30.2%), 현악 전공이 116명(22.1%), 성악 전공이 107명(20.4%), 관악 전공이 65명(12.4%), 한국음악 전공이 40명(7.6%), 작곡 전공이 31명(5.9%), 타악 전공이 7명(1.3%)이었다(<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 분포

		N	%			*N*	%
성별	남	104	19.8	전공	피아노	158	30.2
	여	420	80.2		현악	116	22.1
학년	1학년	328	62.6		성악	107	20.4
	2학년	163	31.1		관악	65	12.4
	3학년	33	6.3		한국음악	40	7.6
					작곡	31	5.9
					타악	7	1.3
	합계	524	100.0		합계	524	100.0

2. 검사 도구

가. 음악가치

음악재능 청소년이 지각한 음악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Vallerand, Rousseau, Grouzet, Dumais, Grenier와 Blanchard(2006)가 사용한 운동가치 척도를 음악분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개 문항(“음악은 나에게 중요하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반응 양식은 Likert식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음악열정

음악재능 청소년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측정하기 위해 안도희와 정재우(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Vallerand 외(2003)의 열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조화열정, 강박열정)으로 각 하위요인별 7개 문항씩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Likert식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의 α)는 조화열정이 .866, 강박열정이 .880으로 나타났다.

다. 음악만족감

음악재능 청소년의 음악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음악분야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Likert식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의 α)는 .822로 나타났다.

라. 음악성취감

음악재능 청소년의 음악성취감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aslach 소진 척도의 하위 요인 중 ‘개인적 성취’ 요인을 음악분야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Likert식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의 α)는 .84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재능 청소년이 지각한 음악가치, 음악열정, 음악만족감, 음악성취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구하였다. 둘째, 음악재능 청소년의 음악열정의 두 개 하위 요인(조화열정, 강박열정)의 고·저에 따라 구분된 4개의 음악열정 군집 간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음악성취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 다변량 분석(One-Way MANOVA)을 수행하였으며, Scheffé 사후 검증을 수행하였다. 셋째, 음악가치, 음악열정,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 간의 관계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의 지표로, χ^2/df,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를 사용하였다. CFI, NFI 및 TL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RMSEA는 .05 미만이면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08이하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AIC는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하였다(Byrne, 2001). 마지막으로, 음악가치, 음악열정의 두 개 하위요인(조화열정, 강박열정) 및 음악만족감이 음악성취감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C(Bias-Corrected Percentile)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가치, 열정, 음악성취감, 음악만족감 간의 상호관련성

음악재능 청소년들이 지각한 음악가치는 열정(r=.543~.578, p<.001), 음악만족감(r=.436, p<.001) 및 음악성취감(r=.45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그 중 조화열정(r=.578, p<.0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표 2> 참조). 열정의 경우, 조화열정은 음악성취감(r=.635, p<.0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음악만족감(r=.564, p<.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강박열정도 음악성취감과 높은 정적 상관(r=.542, p<.001)을 보였으며, 음악만족감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r=.472, p<.001)을 보였다. 음악만족감은 음악성취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606, p<.001).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음악가치	열정		음악만족감	음악성취감
			조화열정	강박열정		
열정	조화열정	.578***	-			
	강박열정	.543***	.636***	-		
음악만족감		.436***	.564***	.472***	-	
음악성취감		.453***	.635***	.542***	.606***	-
M		6.020	5.727	4.785	4.417	4.638
SD		1.080	.797	1.113	1.147	.895
Skewness		-1.183	-.677	-.143	-.025	.028
Kurtosis		1.398	.227	-.085	-.398	.031

***p<.001.

2. 열정 유형의 고 · 저에 따른 집단 구분

음악재능 청소년의 열정의 각 하위요인의 총점을 토대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강박열정과 조화열정의 총점(49점 만점)이 35점 이상일 경우, 상위 집단으로, 35점 미만

일 경우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강박열정과 조화열정 모두 상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228명(43.8%)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고 열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강박열정과 조화열정 모두 하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79명(15.2%)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저 열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반면에, 조화열정이 상위에 속하면서 강박열정이 하위에 속한 학생이 208명(40.0%)으로 이들을 '조화열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조화열정이 하위에 속하면서 강박열정이 상위에 속한 학생이 5명(1.0%)으로 이들을 '강박열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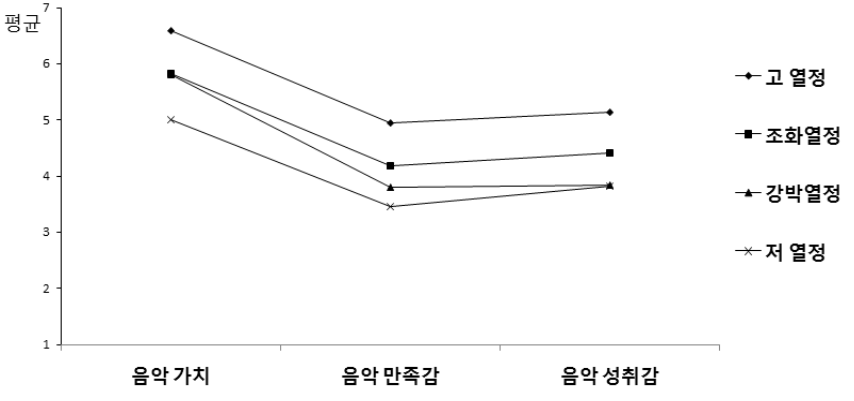
<표 3>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고·저에 따른 열정 군집 분포

		강박 열정	
		상	하
조화 열정	상	*228 (43.8%) 고 열정	*208 (40.0%) 조화열정
	하	*5 (1.0%) 강박열정	*79 (15.2%) 저 열정

*학생수

3. 열정 군집 간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 비교

음악재능 청소년들이 지각한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이 4개의 열정 군집 간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하기 위해 일원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4>, [그림 1] 참조). 그 결과, 열정 군집 간 음악가치, 음악성취감 및 음악만족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590, $F_{(9,1536)}$=27.177, p<.001, partial η^2=.161). 구체적으로, 음악가치의 경우, 4개의 열정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_{(3,512)}$=66.569, p<.001, partial η^2=.281), 특히, 고열정 집단이 조화열정 및 저열정 집단에 비해 음악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p<.001), 조화열정 집단은 저열정 집단에 비해 음악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림 1] 열정 군집별 음악가치, 음악성취감 및 음악만족감 평균치 분포

<표 4> 열정 군집 간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 차이

	Ⅰ. 고 열정		Ⅱ. 조화열정		Ⅲ. 강박열정		Ⅳ. 저 열정		F	η^2	Post hoc
	M	*SD*	*M*	*SD*	*M*	*SD*	*M*	*SD*			
음악가치	6.59	.68	5.82	.94	5.80	.84	5.01	1.28	66.569***	.281	Ⅰ>Ⅱ*** Ⅰ>Ⅳ*** Ⅱ>Ⅳ***
음악만족감	4.94	1.06	4.18	.99	3.80	1.16	3.46	.91	49.947***	.226	Ⅰ>Ⅱ*** Ⅰ>Ⅳ*** Ⅱ>Ⅳ***
음악성취감	5.14	.78	4.42	.72	3.85	.50	3.83	.78	71.561***	.295	Ⅰ>Ⅱ*** Ⅰ>Ⅲ** Ⅰ>Ⅳ*** Ⅱ>Ⅳ***

**p<.01, ***p<.001.

음악만족감의 경우에도 4개의 열정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_{(3,512)}$=49.947, p<.001, partial η^2=.226), 고열정 집단이 조화열정 집단과 저열정 집단에 비해 음악만족감을 높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조화열정 집단이 저열정 집단에 비해 음악만족감을 높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음악성취감의 경우에도 4개의 열정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_{(3,512)}$=71.561, p<.001, partial η^2=.295), 고열정 집단이 조화열정, 강박열정 및 저열정 집단에 비해 음악성취감을 보다 높게 지니고 있으며(p<.01~.001), 조화열정 집단이 저열정 집단에 비해 음악성취감을 높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음악가치, 열정,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 간의 관계모형 검증

음악재능 청소년들이 지각한 음악가치, 열정,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 간의 관계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χ^2=8.153, df=2, p<.05, CFI는 .994, NFI는 .993, TLI는 .958, RMSEA는 .077, AIC는 44.153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볼 때, 관계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5> 관계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χ^2	df	p-value	CFI	NFI	TLI	RMSEA	AIC
8.153	2	.017	.994	.993	.958	.077	44.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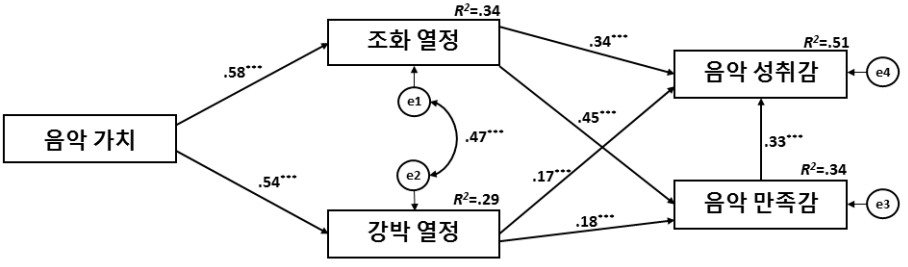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음악가치는 조화열정(β=.58, p<.001)과 강박열정(β=.54,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화열정은 음악성취감(β=.34, p<.001)과 음악만족감(β=.45,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강박열정 또한 음악성취감(β=.17, p<.001)과 음악만족감(β=.18,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음악만족감은 음악성취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β=.33, p<.001)으로 나타났다(<표 6>, [그림 2] 참조).

<표 6> 모수 추정치, 표준화 및 검정통계량

			B	β	S.E.	C.R.
조화열정	←	음악가치	.43	.58***	.026	16.31
강박열정	←	음악가치	.56	.54***	.038	14.70
음악만족감	←	강박열정	.19	.18***	.048	3.95
음악만족감	←	조화열정	.64	.45***	.067	9.61
음악성취감	←	조화열정	.39	.34***	.049	7.91
음악성취감	←	음악만족감	.26	.33***	.029	8.85
음악성취감	←	강박열정	.13	.17***	.033	4.05

***p<.001.



***p<.001.

[그림 2] 관계모형 분석 결과

또한,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이 모두 음악만족감과 음악성취감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수 추정치들의 쌍에 대한 차이검증(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을 통해 각 경로계수 간 차이에 대한 CR(Critical Ratios)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음악만족감에 미치는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경로계수의 차이(CR=4.354)와 음악성취감에 미치는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경로계수의 차이(CR=3.596)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R>|1.965|).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볼 때, 조화열정이 강박열정에 비해 음악성취감과 음악만족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성취감에 대한 음악가치, 열정(조화열정, 강박열정) 및 음악만족감의 직·간접 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표 7> 참조), 음악성취감에 대한 총효과는 조화열정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493, p<.01), 음악가치(.408, p<.01), 음악만족감(.334, p<.05), 강박열정(.226,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성취감에 대한 직접효과 또한 조화열정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344, p<.01), 음악만족감(.334, p<.05), 강박열정(.165,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성취감에 대한 간접효과는 음악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8, p<.01), 조화열정(.149, p<.05), 강박열정(.061,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음악성취감에 대한 음악가치, 열정 및 음악만족감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음악성취감	음악가치		-	.408**	.408**
	열정	조화열정	.344**	.149*	.493**
		강박열정	.165*	.061*	.226*
	음악만족감		.334*	-	.334*

*p<.05, **p<.01.

BC(Bias-Corrected Percentile)법을 사용하여 직·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음악성취감에 대한 음악가치, 열정 및 음악만족감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5~.01), 음악가치(p<.01)와 열정의 두 하위 요인들(조화열정, 강박열정)(p<.05) 또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음악재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추후연구를 위한 제한점 및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재능 청소년들이 지닌 음악에 대한 가치, 열정,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은 상호 밀접한 정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볼 때, 음악재능 청소년들이 지닌 음악에 대한 가치를 높게 지닐수록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이 강하며, 아울러 음악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보다 높게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재능 청소년들이 음악에 대한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을 높게 지닐수록 음악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게 지닐 가능성이 크며, 음악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음악에 대한 성취감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열정이 만족감 혹은 성취감과 밀접한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몇몇 관련 선행연구(Berndt & Miller, 1990; Bonneville-Roussy et al., 2011; Casas et al., 2004; Curran et al., 2015; Vallerand et al., 2007; Vallerand et al., 2010) 결과를 지지해준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음악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 및 성취감에서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를 높게 지니고 있는 고열정 집단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음악에 대한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를 높게 지니는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을 보다 높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화열정만을 높게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를 낮게 지니고 있는 저열정 집단 학생들에 비해 음악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 및 성취감을 높게 지니고 있는데 반해, 강박 열정만을 높게 지니고 있는 학생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음악에 대한 강박열정만을 높게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불과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강박열정 집단에 대한 대단위 표집을 통해 이에 대한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추후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음악재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높게 지니고 있는 학생의 비중이 4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지닌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및 음악성취감이 다른 집단(조화열정 집단, 저열정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볼 때, 열정이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으로 구분되지만, 조화열정과 더불어 강박열정 또한 높게 지니고 있는 음악재능 청소년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의 음악 분야 만족감 및 성취감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음악에 대한 조화열정과 함께 강박열정을 높게 지닐 때 음악에 대한 가장 높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다른 분야에서도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높게 지니고 있는 재능아 혹은 영재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전문분야 만족감과 성취감이 가장 높은지에 대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조화열정이 높은 사람들은 과도하게 무리해가면서 자신이 열정을 쏟는 활동에 전력투구하지는 않으며, 상황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활동참여를 중단하는데 반해, 강박열정이 높은 사람들은 열악한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열정을 쏟는 활동에 참여한다(안도희, 정재우, 2010; Vallerand et al., 2007). 따라서 강박열정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취감 또한 높게 지닐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음악성취감에 대한 총 효과는 조화열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가치, 음악만족감, 강박열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재능 청소년들이 음악성취감을 높게 지니게 하는 데에는 음악에 대한 강박열정보다는 조화열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allerand 외(2003)의 주장에 의하면, 강박열정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인 끈기와 인내를 갖고 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피로와 심지어 신체적인 부상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최적 수준의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조화열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무리를 무릅쓰고 활동에 참여하게 하진 않지만, 압박과 불안을 덜 경험하게 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을 보이는데 도움이 된다(Vallerand et al., 2003). 이에 강박열정보다 조화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음악재능 청소년으로 하여금 보다 높은 음악만족감을 지니게 해줌으로써 종국적으로 이들의 음악성취감을 보다 높게 지니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음악재능 청소년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 만족감 및 성취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이 지닌 열정 중 조화열정이 이들의 음악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음악 분야에 재능을 지닌 청소년들에 한정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과학, 미술, 체육 등의 다른 분야에 재능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가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Bélanger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강박열정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보다 높은 성취를 보이며, 강박열정이 높을수록 실

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게 되어 높은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음악에 대한 조화열정이 높은 집단, 강박열정이 높은 집단 그리고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높은 집단 중 어느 집단이 가장 높은 성취와 만족감을 보이는지에 대해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화열정을 추구하는 음악가들은 음악과 관련된 활동 이외에 자신의 삶의 다른 측면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음악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에도 죄책감이나 화(anger)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 않는다(Bonneville-Roussy et al., 2011). 반면에, 강박열정을 추구하는 음악가들은 음악활동에 대한 자신의 욕구에 의해 삶이 통제되므로, 연주를 못하게 될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열정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음악에 대한 조화열정을 추구할수록 음악에 대한 만족감이 증진되어 보다 나은 성취감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에 대한 재능을 지닌 청소년들의 열정의 두 하위 요인인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을 중심으로 이들이 지닌 음악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 및 성취감을 다룬 본 연구결과는 음악 재능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향후 이들이 보다 나은 성취를 이루도록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안도희, 정재우 (2010). 음악재능 청소년의 계획적 연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정과 성취 목적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0**(3), 947-966.

Balkis, M. (2013). Academic procrastination, academic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on role of rational beliefs about studying. *Journal of Cognitive and Behavioral Psychotherapies, 13*(1), 57-74.

Bélanger, J. J., Lafreniere, M. A. K., Vallerand, R. J., & Kruglanski, A. W. (2013). Driven by fear: The effect of success and failure information on passionate individuals'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1), 180-195.

Berndt, T. J., & Miller, K. E. (1990). Expectancies, values, and achievement in junior high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2), 319-326.

Bonneville-Roussy, A., Lavigne, G. L., & Vallerand, R. J. (2011). When passion leads to excellence: The case of musicians. *Psychology of Music, 39*(1), 123-138.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J: Lawrence Erlbaum.

Casas, F., González, M., Figuer, C., & Coenders, G. (2004). Subjective well-being, values and goal achievement: The case of planned versus by chance searches on the internet.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 123-141.

Cox, K. B. (2003). The effects of intrapersonal, intragroup, and intergroup conflict on team performance effectiveness and work satisfaction.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27*(2), 153-163.

Croom, A. M. (2012). Music, neuroscience, and the psychology of well-being: A précis. Retrieved from http://journal.frontiersin.org/article/10.3389/fpsyg.2011.00393/full

Curran, T., Hill, A. P., Appleton, P. R., Vallerand, R. J., & Standage, M. (2015). The psychology of passion: A meta-analytical review of a decade of research on intrapersonal outcomes. *Motivation and Emotion, 39*(5), 631-655.

Diener, E. D., Emmons, R. A., Lar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Feather, N., T. (1992). Values, valences, expectations, and ac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2), 109-124.

Forest, J., Mageau, G. A., Sarrazin, C., & Morin, E. M. (2011). "Work is my passion": The different affective, behavioural,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harmonious and obsessive passion toward work.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e l'Administration, 28*(1), 27-40.

Heffner, A. L., & Antaramian, S. P. (2016).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predicting student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4), 1681-1701.

Lafrenière, M. A. K., St-Louis, A. C., Vallerand, R. J., & Donahue, E. G. (2012). On the relation between performance and life satisfaction: The moderating role of passion. *Self and Identity, 11*(4), 516-530.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2*(2), 99-113.

Philippe, F. L., Vallerand, R. J., & Lavigne, G. L.(2009). Passion does make a difference in people's lives: A look at well-being in passionate and non-passionate individual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 1*(1), 3-22.

Rode, J. C., Arthaud-Day, M. L., Mooney, C. H., Near, J. P., Baldwin, T. T., Bommer, W. H., & Rubin, R. S. (2005).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4*(4), 421-433.

Stenseng, F., Forest, J., & Curran, T. (2015). Positive emotions in recreational sport activities: The role of passion and belonging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5), 1117-1129.

St-Louis, A. C., Carbonneau, N., & Vallerand, R. J. (2015). Passion for a Cause: How it affects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84*(3), 263-276.

Vallerand, R. J., Blanchard, C.,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 Léonard, M., Gagné, M.,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s de l'Â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Vallerand, R. J., Paquet, Y., Philippe, F. L., & Charest, J. (2010). On the role of passion for work in burnout: A process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78*(1), 289-312.

Vallerand, R. J., Rousseau, F. L., Grouzet, F. M., Dumais, A., Grenier, S., & Blanchard, C. M. (2006).

Passion in sport: A look at determinants and affective experienc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8*(4), 454-478.

Vallerand, R. J., Salvy, S., Mageau, G. A., Elliot, A. J., Denis, P. L., Grouzet, F. M. E., & Blanchard, C. (2007). On the role of passion in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75*(3), 505-534.

= Abstract =

Musically Talented Adolescents' Passion for Music: On the Relations of Music Valuation, Satisfaction in Music, and Music Accomplishment

Doehee Ahn
Chung-Ang University

Yuree Kim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SungA Hong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assion profiles an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usic valuation(MV), passion for music (i.e., harmonious passion, obsessive passion), and satisfaction in music(SM) on music accomplishment(MA) of musically talente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Of the 599 musically talented high school students surveyed from Gyonggi, Chungnam, and Busan in South Korea, 524 completed and returned the questionnaires yielding a total response rate of 87.48%. Students with high harmonious passion(HP) and high obsessive passion(OP) were classified as high passion students(Nhigh passion=228), where as those with low HP and low OP were classified as low passion students(Nlow passion=5). Students with high passion had higher MV and higher SM than those with high HP or low passion. Moreover, those with high passion had higher music accomplishment than those with high HP, high OP, or low passion. Students with high HP had higher MA and SM than those with low passion. MV affected MA through both HP and OP, and also SA. HP and OP also affected MA and SA. SM directly affected MA. Total effects of HP on MA were higher than those of OP, SM, and MV. The indirect effect of HP on MA were higher than those of OP. Findings indicated that the more students have a HP, the more they showed higher SM and MA when they engaged in music activity with higher MV. Future research is need to replicate these findings with professional musicians at higher levels of expertise.

Key Words: Passion for music, Satisfaction in music, Music accomplishment, Music valuation, Musically talented adolescents

1차 원고접수: 2017년 2월 15일
수정원고접수: 2017년 3월 27일
최종게재결정: 2017년 3월 27일